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 비교*

The Influence of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in Infancy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 Comparison of the Single Mediation Effect and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1차원고접수: 2025.01.03. 수정원고접수: 2025.09.03. 최종게재결정: 2025.09.21.

채수은¹ · 박소연²

¹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²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Soo Eun Chae¹

So Yeon Park²

¹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단일매개모형과 이중매개모형을 비교하였다. 한국아동패널 7차(만 6세), 8차(만 7세), 9차(만 8세)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부모 및 담임교사의 평가를 포함한 841명(남아 431명, 여아 4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만 6세)은 학교 적응(초2)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초1)과 집행기능(초1)을 매개로 간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단일매개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또는 집행기능을 통한 경로가 확인되었으며, 이중매개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연속적 경로가 아동의 학교 적응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인지적 발달을 거쳐 학교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부모 양육행동,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집행기능곤란, 종단적 영향, 아동패널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omparing the single and sequential mediation models.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s Panel (7th wave at age 6, 8th wave at age 7, and 9th wave at age 8), including 841 children (431 boys, 410 girls) along with parent and teacher evaluations, were analyzed. Path analysis revealed that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at age 6 did not directly affect school adjustment in second grade but had an indirect positive effect through self-esteem (1st grade) and executive function (1st grade). The single mediation model confirmed pathways through self-esteem or executive function, while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validated a two-step process where self-esteem influenced executive function, which in turn affected school adjustment.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showed superior fit, suggesting that self-esteem and executive function together provide a more precise explanation of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long-term impact of father's parenting on school adjustment through psychological and cognitive development.

Keywords *father's warmth parenting behavior, school adaptation, self-esteem,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longitudinal influ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적응은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중요

한 발달 과업 중 하나로, 학업 수행뿐만 아니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 학교 규칙 준수,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을 포함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아동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며, 정서적 안

*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4S1A5A2A01021370)

Corresponding to 박소연 (So Yeon Park)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Dept. of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mail. joanbak@naver.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정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김수정, 곽금주, 2010). 따라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교육 및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해 왔다. 예를 들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동은 정서적 조절력이 뛰어나며, 사회적 환경에서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권연희, 박경자, 1997; Morrison, Ponitz, & McClelland, 2003).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부예숙, 2012),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학교 적응에 기여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Lee, Yun, & Kim, 2021).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hae & Koran, 2017). 특히, 학령기 초반이 어머니 중심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이후 학교 적응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학령기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단순한 보호자 역할을 넘어, 자녀의 학업과 교육적 지원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조순옥, 채수은, 2020).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부모 역할 수행과 자녀의 발달 특성 간의 관계가 한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며(Lee, Kim, Lee, & Chin, 2012), 이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자녀의 내적 발달과 학교 적응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조순옥, 채수은, 2020).

특히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적·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연구 주제로 부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부모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현주, 홍상환, 2015; Jackson, Choi, & Bentler, 2009; Rohner, 2010). 이에 따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적응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며(Paulus, Licata, Gniewosz, & Sodian, 2018), 유아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Orth, 2018). 즉 입학 이전의 부모 양육행동이 이후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s)은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고 목표 지향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Baggetta & Alexander, 2016), 억제 제어, 작업 기억, 전환/인지 유연성 등의 하위 기능으로 구성된다(Chae, 2022). 집행기능이 높은 아동은 주의 집중, 정서 조절, 자기 조직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원만한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oh & Jeon, 2022).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교 적응 간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단일매개 및 이중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비교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초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관계 형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Parke, Burks, Carson, Neville, & Boyum, 1994).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어머니와의 애착 및 온정적 양육이 자녀의 정서 조절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권연희, 박경자, 1997; 부예숙, 2012; Morrison et al., 2003).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지적·사회적 발달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Chae & Koran, 2017).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자녀와 아버지 간의 의사소통은 학령기 이전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자녀의 학업 성취 및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Do,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온정적이고 개방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학교 적응과 성취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유니, 이정숙, 2012; Han, 2003). 또한,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아동이 소외감을 덜 느끼도록 하며,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영역인 수업 참여,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규칙 준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Ji, 2007). 이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가정 내에서 형성된 긍정적 의사소통 경험을 학교생활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과 자녀와의 관계 형성이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Choi & Won, 2013),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 특히 수학, 언어 능력이나 문제해결 기술 및 학업 성취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zović et al., 2022).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

에서 자아 확립과 적응력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Han, 2010; Kim, 2006), 아버지의 언어적·비언어적 행동과 생활 습관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류성진, 2009; 이희진, 이진희, 2022). 이에 따라,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녀-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배경 변인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이 양육행동 및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Kim, 1989), 자녀의 성별과 출생 순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wang, 2014).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이 양육행동 및 자녀-아버지 간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를 차지한다(Han & Lee, 2015; Kim, 2015; Smetana & Daddis, 2002).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보일 경우, 양육행동이 소극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Kim, 2015). 즉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행동은 단순한 보호자의 역할을 넘어,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임을 시사한다.

아동의 학교 적응은 다양한 심리·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이러한 발달 과정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기능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서적 자원으로서(Paulus et al., 2018),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과 학교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귀옥, 이미리, 2022; 지성애, 김성현, 2014). 아울러, 집행기능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인지적 능력으로서(Baggetta & Alexander, 2016),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업수행에서 적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김지혜, 김민정, 2020; 박정현, 이경남, 2021; Chae, 2022).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자아존중감은 사고, 행동, 정서 전반에 영향을 주며(Brown, 1998),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집행기능 수행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낮은 아동은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권희경, 김원경, 2020, 2021; 민미희, 2020).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선행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집행기능과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속적·이중매개 경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위의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기존 연구들은 이들 변인을 주로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령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어머니 중심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경로가 확인된 바 있으나(이선희, 2022), 이와 유사한 분석이 아버지의 양육을 중심으로 확장된 사례는 드물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곤란, 미디어기기 중독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 역시(민미희, 2020), 분석의 중심을 어머니의 역할에 두고 있어 아버지의 양육특성

을 반영한 설명모형은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정서적 개입이 자녀의 자기조절, 사회성, 학업수행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보고되면서(Cabrera, Volling, & Barr, 2018; Hosokawa, Katsura, & Shizawa, 2015),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단면적 상관 분석 수준에 머무르며, 심리·인지적 매개기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단적 구조모형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유아기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령기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단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아버지 양육의 구체적 영향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그림 1과 그림 2 참조).

연구문제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매개되어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이 두 변인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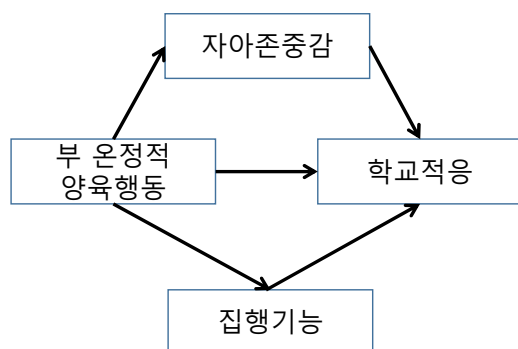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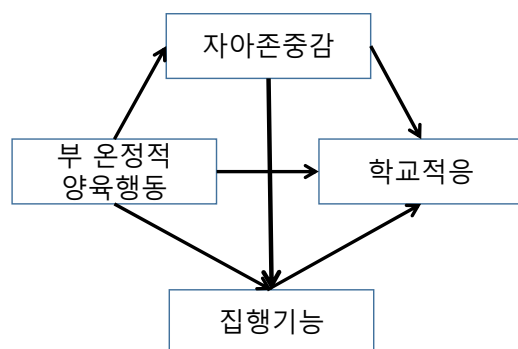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2

학교 적응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매개하는가(이중매개효과)?

연구문제4. 단일매개모형과 이중매개모형 중 어느 모형이 아동의 학교 적응을 더 잘 설명하는가(모형 적합도 비교)?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7차, 8차,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PSKC는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코호트 집단을 매년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9차년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기준 대상 아동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7차년도(만 6세) 자료에서 부-양육행동을, 8차년도(초 1) 자료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점수)을, 9차년도(초 2) 자료에서 아동의 학교 적응 변인을 사용하였다. 7차 ~ 9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가구 중 연구 변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분석 대상은 남아 431명(51.2%), 여아 410명(48.8%) 총 841명이고 그들의 부모 및 담임교사가 포함된다.

2. 조사도구

1) 온정적 양육행동: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를 참고하여 제작된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양육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온정적 양육(6문항)과 통제적 양육(6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온정적 양육행동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의 예로는 “아이의 의견을 존

중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아이의 행동이나 아이가 성취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등이 포함된다. 부모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아버지가 보고한 온정적 양육행동의 6개 문항을 합산한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보다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온정적 행동(통제적 양육)의 영향을 배제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의 독립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척도의 하위요인 중 온정적 양육행동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정적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2) 학교 적응: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2016년)에서 사용한 학교 적응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급 담임교사의 보고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생활 적응(11문항), 학업수행 적응(11문항), 또래 적응(8문항), 교사 적응(5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요인은 학교 규칙 준수 및 생활 태도(예: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학습 태도 및 과제 수행(예: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또래 관계(예: “친구를 잘 도와준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예: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을 평가한다. 일부 문항(예: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어 한다.”,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은 역채점되었다.

학교 적응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요인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 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척도 .97, 학교생활 적응 .96, 학업수행 적응 .95, 또래 적응 .94, 교

사 적응 .81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MCS(2008)에서 아동의 연령에 맞게 원래의 10문항을 5문항으로 축소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버전으로, 한국아동패널 9차년도(2016년)에서 적용되었다.

본 척도는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니?”, “○○이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는 스스로를 좋아하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문항의 합산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7로, 적절한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4) 집행기능: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을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송현주(2014)가 개발한 집행기능곤란 척도(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EFDSQ)의 역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계획-조직화 곤란(11문항),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정서통제 곤란(8문항), 부주의(10문항)의 4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집행기능 척도는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관찰을 바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예로는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곤란 척도의 역채점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집행기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4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계획-조직화 곤란(역채점) .88, 행동통제 곤란(역채점) .84, 정서통제 곤란(역채점) .90, 부주의(역채점) .90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척도가 아동의 집행기능을 측정하는데 있어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밖에 통제변수로 아동의 성별(gender)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 Economic Status; SES)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7차년도 측정 당시 가구의 월 소득을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LS-SEM(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ir, Hult, Ringle, & Sarstedt, 2022)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변인(학교 적응, 부-온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집행기능)의 기술통계 수치와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측정변인은 해당 척도의 문항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4(Ringle, Wende, & Becker, 2023)를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단일매개모형과 이중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회 반복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경로계수 및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R^2 (결정계수), NFI(Normed Fit Index) 지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중매개모형과 단일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두 모형 중 학교 적응을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아동의 성별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0 = 남아, 1 = 여아로 이진 코딩하였으며,

SES는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을 종합하여 표준화 점수(z-score)로 산출한 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 및 SES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은 SmartPLS 4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SPSS 28.0(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연구 변인들은 모두 왜도의 절댓값 3 미만, 첨도의 절댓값 10 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분석 결과, 취학 직전인 만 6세 시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r = .08, p < .05$). 만 6세 시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r = .15, p < .001$) 및 집행기능($r = .20, p < .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

감은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r = .16, p < .001$)을,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은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r = .29, p < .001$)을 보였다.

2.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단일매개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일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은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0, p < .001$),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01$). 그러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1, p = .86$).

한편,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8, p < .001$), 자아존중감 역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01$). 간접효과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beta = .06, p < .001$),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

표 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M	SD	Min	Max	왜도	첨도
부-온정적 양육행동	21.0	3.47	10	30	-0.101	0.0796
자아존중감	17.1	2.51	5	20	-1.08	1.77
집행기능	102.4	11.70	50	120	-0.812	0.082
학교 적응	138.6	24.37	49	175	-0.645	-0.0844

표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명	부-온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집행기능	학교 적응
부-온정적 양육행동	1			
자아존중감	.15***	1		
집행기능	.20***	.16***	1	
학교 적응	.08*	.16***	.294***	1

* $p < .05$. ** $p < .01$. *** $p < .001$.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1$).

총효과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는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8, p = .03$).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SRMR 값은 .03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학교 적응의 설명력인 R^2 값은 .10로 나타났다. 또한 NFI는 .80로, 모형이 적절하게 데이터에 부합함을 보여준다.

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이중매개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집행기능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은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8, p < .001$), 자아존중감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 p < .001$). 그러나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1, p = .86$).

한편, 아동의 집행기능은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8, p < .001$), 자아존중감 역시 1% 유의수준($p < .05$)에서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 p = .001$). 간접효과 분석 결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beta = .05, p < .001$),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또한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p = .01$). 특히, 부의 온정적 양육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beta = .01, p < .01$), 향상된 자아존중감은 다시 아동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며($\beta = .01, p < .01$), 이러한 집행기능의 증진은 결과적으로 학교 적응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의 온정적 양육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집행기능을 통해 학

교 적응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는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효과 분석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전체 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는 5% 유의수준($p <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08, p = .03$).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SRMR 값은 .03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학교 적응의 설명력인 R^2 값은 .10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부모 교육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4.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비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매개역할을 분석하고, 단일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의 상대적 적합도 및 기여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수한 적합도 지표를 보였다.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값은 이중매개모형이 .03, 단일매개모형이 .04로 두 모형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08 이하)이었으나, 이중매개모형이 더 낮은 값을 나타내며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에서도 이중매개모형이 각각 .95와 .90으로, 단일매개모형(.91, .89)에 비해 더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은 두 모형 모두 .05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NFI에서도 이중매개모형(.91)이 단일매개모형(.88)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였다.

특히, 단일매개모형의 경우 TLI(.89)와 NFI(.88)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기준(.90)보다 낮아, 모형의 적합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단일매개모형을 기각하지 않고 해당 결과를 함께 제시한 이유는, 단일매개경로인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이르는 효과가 $\beta = .02(p = .01)$ 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학교 적응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이귀옥, 이미리, 2022; 지성애, 김성현, 201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비록 모형 적합도 지표가 다소 낮더라도 해당 경로의 이론적 및 실제적 중요성을 지지한다.

단일매개경로(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beta = .02, p < .05$)와 이중매개경로(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beta = .01, p < .05$) 모두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단일매개경로의 z 값 = 2.50, 이중매개경로의 z 값 = 2.50 ~ 2.71로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었다(표 3, 표 4 참조).

비록 표준화계수의 절대값만으로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일매개경로의 간접효과가 이중매개경로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매개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거쳐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표준화계수 차이만으로 두 경로의 중

표 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단일매개효과

Type	Effect	Estimate	SE	95% C.I. (a)		β	z	p
				Lower	Upper			
직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7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13	.04	.06	.20	.13	3.70	< .001
	집행기능 → 학교 적응	.28	.04	.21	.34	.28	8.01	< .001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11	.04	.05	.18	.11	3.33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1	.04	-.06	.08	.01	.18	.86
간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6	.01	.03	.08	.06	4.70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02	.01	.01	.03	.02	2.50	.01
총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6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8	.04	.01	.15	.08	2.17	.0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표 4.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이중매개효과

Type	Effect	Estimate	SE	95% C.I. (a)		β	z	p
				Lower	Upper			
직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18	.03	.12	.24	.20	5.46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 .001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13	.04	.06	.20	.13	3.70	< .001
	집행기능 → 학교 적응	.28	.03	.21	.34	.28	8.01	< .001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11	.03	.05	.18	.11	3.33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1	.04	-.06	.08	.01	.18	.86
간접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5	.011	.03	.07	.05	4.36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02	.01	.01	.04	.02	2.71	.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학교 적응	.02	.01	.01	.03	.02	2.50	.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 집행기능 → 학교 적응	.01	.002	.002	.01	.006	2.54	.01
총효과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집행기능	.20	.03	.14	.26	.20	6.13	< .001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학교 적응	.08	.04	.01	.15	.08	2.16	.03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 → 자아존중감	.15	.04	.08	.22	.15	4.20	<.001

표 5. 모형 적합도 비교

지표	수용 기준	이중매개모형	단일매개모형	해석
SRMR	$\leq .08$	.03	.04	두 모형 모두 적합, 이중매개모형이 더 우수
CFI	$\geq .90$	.95	.91	두 모형 모두 적합, 이중매개모형이 더 우수
TLI	$\geq .90$	.90	.89	이중매개모형은 적합, 단일매개모형은 기준 미달
RMSEA	$\leq .08$	.05	.05	두 모형 모두 양호
NFI	$\geq .90$	.91	.88	이중매개모형은 적합, 단일매개모형은 기준 미달

요성을 단정하기보다는, 통계적 유의성과 이론적 배경을 종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전반적인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경로가 더 적합함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미하게나마 이중매개모형이 보다 정교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하여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경로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 적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의 개별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연속적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유아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학 직전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기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이 아동

의 발달 과정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 혹은 집행기능과 같은 인지적 변인을 거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유아기의 아버지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령기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아동은 이후 학교 적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사회적·학업적 적응을 돕는다는 선행 연구(김영춘, 정민숙,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차한솔, 김주일, 이호수, 2019)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 이 아동의 자아상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 및 적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집행기능을 매개로 하여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동의 집행기능을 통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동의 학교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집행기능이 아동의 학업 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집행기능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문제 해결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Miyake et al., 2000), 이러한 기능이 미숙할 경우 아동은 학습과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 결과는 온정적 양육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아동의 학업 수행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민미희, 2018; 박보경, 노지운, 2020; 윤태희, 2021).

넷째, 이중매개모형이 단일매개모형보다 모형의 적합도가 더 양호했다. 유아기에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집행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순히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매개로 추가적으로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는 경로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집행기능을 촉진하고, 집행기능이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적응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아버지의 양육은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이 정서적 안정감과 애착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아버지의 양육은 자율성과 문제 해결력 향상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Parke, 2002; Pleck, 2010). 따라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단순히 정서적 지지뿐만 아니라, 아동의 인지적 조절 능력과 학업적·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남성 멘토(예: 교사, 친척, 멘토링 프로그램)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어머니의 양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제공, 그리고 자기조절 전략 훈련 등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학교 적응을 촉진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강화하는 부모-자녀 프로그램이 아동의 학

교 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단순히 아버지만을 대상으로하는 양육행동 증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는 “블록 쌓기 챌린지”(목표 설정, 자아존중감)이나 “가족 협력 미션”(계획력, 책임감)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여 아동이 문제해결, 자기 조절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만 6세 시점에서 측정하였으나, 양육행동은 단일 시점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기 전반에 걸친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아동패널 7, 8, 9차 자료로, 약 10년 전에 수집된 데이터라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의 아버지 양육행동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양육 방식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별 응답자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부(父)가 자기 보고 방식으로 응답하였고,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집행기능은 모(母)가, 학교 적응은 교사가 각각 평가하였다. 이처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자가 응답함으로써 공통방법에 따른 편향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각 척도 간 평가자의 인식 차이와 주관성이 측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한 점은 실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관찰이나 질적 면담, 또는 혼합방법 설계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

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거쳐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실험 연구가 아니므로 인과관계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통해 학교 적응에 미치는 복합적 경로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이중매개모형의 우위가 확인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이는 학교생활에서 또래 관계 및 학업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했을 때 학교 적응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향상뿐만 아니라,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희, 박경자 (1997).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 양육 행동의 역할. *생활과학논집*, 11, 91-101.
- 권정윤, 정미라, 이방실 (2015). 아버지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인지, 동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5(1), 333-350.
- 권희경, 김원경 (2020). 아동의 심리적 요인,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아동 집행기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4(1), 143-162.
<https://doi.org/10.32349/ECERR.2020.2.24.1.143>
- 김수정, 광금주 (2010). 초등일학년 학교 적응의 예언 변인들 간 관련성 탐색. *인간발달연구*, 17(4), 89-109.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지*, 23, 51-70.
-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 (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혜, 김민정 (202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327-339.
- 김현주, 홍상환 (20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6(1), 413-429.
<https://doi.org/10.20972/kjee.26.1.201503.413>
- 류성진 (2009).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행위가 자녀의 감정조절능력 및 인지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3(5), 5-30.
- 민미희 (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https://doi.org/10.22590/ecee.2018.22.3.91>
- 민미희 (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https://doi.org/10.22590/ecee.2018.22.3.91>
- 박보경, 노지운 (2020).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령 초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2), 163-179.
<https://doi.org/10.5723/kjes.2020.41.2.163>
- 박유니, 이정숙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7(1), 75-91.
- 박정현, 이경님 (202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학업수행능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지*, 13(2), 93-115.
<https://doi.org/10.36431/JPE.13.2.5>
- 부예숙 (2012).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학회지*, 3(1), 121-145.
- 송현주 (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https://doi.org/10.15842/kjcp.2014.33.1.008>
-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 (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한국아동패널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태희 (2021).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아동의 집행기능,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5-116.
- 이귀옥, 이미리 (2022).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디어 사용시간,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

- 차지연 모형 적용. *열린부모교육연구*, 14(2), 89-112.
<https://doi.org/10.36431/JPE.14.2.5>
- 이선희 (2022).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집행기능 곤란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7(2), 199-218.
<https://doi.org/10.13049/kfwa.2022.27.2.4>
- 이희진, 이진희 (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7), 725-736.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7.725>
-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Human Ecology Research(HER)*, 37(10), 123-133.
- 조순옥, 채수은 (2020). 초등학교 1학년 아버지 페르소나와 자녀가 지각한 자녀-아버지 의사소통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7(1), 117-138.
<https://doi.org/10.15284/kjhd.2020.27.1.117>
- 지성애, 김성현 (2014). 유아의 행동문제와 인지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분석. *유아교육연구*, 34(3), 197-219.
<https://doi.org/10.18023/kjece.2014.34.3.010>
- 지성애, 정대현 (2006). 초등학교 일학년용 학교 적응 척도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7(1), 1-15.
- 차한술, 김주일, 이호수 (2019).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4), 41-5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아동패널 제9차년도 조사 보고서 (PSKC 2016)*.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aggetta, P., & Alexander, P. A. (2016).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executive function. *Mind, Brain, and Education*, 10(1), 10-33.
<https://doi.org/10.1111/mbe.12100>
- Brown, J. D. (1998). *The Self*. New York: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203837641>
- Cabrera, N. J., Volling, B. L., & Barr, R. (2018). Fathers are parents, too! Widening the lens on parenting for children's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3), 152-157.
<https://doi.org/10.1111/cdep.12275>
- Chae, S. E. (2022). Executive function and effortful control—Similar and different evidence from big data 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04403.
<https://doi.org/10.3389/fpsyg.2022.1004403>
- Chae, S. E., & Koran, J. (2017). The effects of parent involvement on kindergarten children's reading achievement: A multilevel analysis. *The Korea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9-69.
- Choi, Y. M., & Won, S. S. (2013). Influence of family strengths of the adolescents on the adjustment to the school.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0(1), 199-216.
- Do, K. H. (2008). Relation among father's child-rearing involvement, father-child communication style,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4), 139-155.
- Goh, E. K., & Jeon, H. J. (2022). Application of a Bayesian network learning model to predict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lligence*, 10(4), 74-97.
<https://doi.org/10.3390/jintelligence10040074>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 (2022).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Han, N., & Lee, S. Y. (2015).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triangulation and instability-based self-evalu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181-203.
- Han, S. Y. (2010).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125-143.
- Han, Y. S. (2003).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 and a sense of alie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South Kore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osokawa, R., Katsura, T., & Shizawa, 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s, fathers' involvement, and economic status i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Health Science*, 5(3), 52-57.
<https://doi.org/10.5923/j.health.20150503.02>
- Hwang, H. J. (2014).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children's perceived happiness.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0, 159-190.
- IBM Corp. (2021).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8.0 [Computer software]*. IBM Corp.
- Jackson, A. P., Choi, J.-K., & Bentler, P. M. (2009). Parenting efficacy and the early school adjustment of poor and near-poor Black children. *Journal of Family Issues*, 30(10), 1339-1355.
<https://doi.org/10.1177/0192513X09334603>
- Ji, H. S. (2007). A study of relationship o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intimacy. *The P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1), 153-170.
- Kim, M. H. (1989).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South Kore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M. J. (2015).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rital characteristics, parenting styles, and infant social development*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ejeon, South Korea: Baejae University.
- Kim, Y. J. (2006).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coping with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South Korea: Seoul Women's University.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https://doi.org/10.2307/1131882>
- Lazović, N., Krulj, J., Vidosavljević, S., & Marković, E. (2022). The correlation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ir children: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Research in Scie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10(3), 53-60.
<https://doi.org/10.23947/2334-8496-2022-10-3-53-60>
- Lee, J. R., Kim, J. A., Lee, Y. J., & Chin, Y. A. (2012). A meta-analytic study of associations between father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7(1), 151-173.
- Lee, S. A., Yun, H. J., & Kim, H. Y. (2021). The Effects of Fa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Peer Play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2(3), 371-381.
<https://doi.org/10.5723/kjcs.2021.42.3.371>
- Miyake, A., Friedman, N. P., Emerson, M. J., Witzki, A. H., Howerter, A., & Wager, T. D. (2000). The unity and diversity of executive functions and their contributions to complex "frontal lobe" tasks: A latent variable analysis. *Cognitive Psychology*, 41(1), 49-100.
<https://doi.org/10.1006/cogp.1999.0734>
- Morrison, F. J., Ponitz, C. C., & McClelland, M. M. (2003). Self-regu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transition to school. In S. B. Neuman & D. K. Dickinson (Eds.), *Handbook of early literacy research* (Vol. 2, pp. 203-218). New York, NY: Guilford Press.
- Orth, U. (2018). The family environment in early childhood has a long-term effect on self-esteem: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27 ye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4(4), 637-655.
<https://doi.org/10.1037/pspp0000143>
- Parke, R. D. (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Being and becoming a parent* (Vol. 3, pp. 27-7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rke, R. D., Burks, V. M., Carson, J., Neville, B., & Boyum, L. (1994). Family-peer relationships: A tripartite model. In R. D. Parke & S. G. Kellam (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s* (pp. 115-14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ulus, M., Licata, M., Gniewosz, B., & Sodian, B. (2018). The impact of mother-child interaction quality and cognitive abilities on children's self-concept and self-esteem. *Cognitive Development*, 48, 42-51.
<https://doi.org/10.1016/j.cogdev.2018.07.001>
- Pleck, J. H. (2010). Paternal involvement: Revised conceptualization and theoretical linkages with child outcom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5th ed., pp. 58-93). New York, NY: Wiley.
- Ringle, C. M., Wende, S., & Becker, J.-M. (2023). *SmartPLS 4 [Computer software]*. SmartPLS GmbH.
- Rohner, R. P. (2010). Perceived teach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and the adjustment, achievement, and behavior of school-going youths internationally. *Cross-Cultural Research*, 44(3), 211-221.
<https://doi.org/10.1177/106939711036684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etana, J. G., & Daddis, C. (2002). Domain-specific anteceden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of parenting beliefs and practices. *Child Development*, 73(2), 563-580.
<https://doi.org/10.1111/1467-8624.00428>